

# 한-사우디 보건의료분야 협력동향

( 2015. 4. 29 )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

## 1. 한국 보건의료, 제약 및 의료기관 사우디 진출 합의

- 금년 3월중 아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민관 합동 대표단(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및 제약기업 등)은 사우디 보건부, 민간 기업 등과 잇따른 정부 간(G2G) 및 민간 간(B2B) 회담을 통해 보건의료·제약 플랜트·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 확대에 합의함
  - '15. 3. 3자 양국 보건부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아국 보건부는 '12년부터 양국간 상호 방문을 통해 추진해온 한-사우디 보건분야 협력 논의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함
  - 사우디 보건부는 양국 보건의료 협력범위를 기존 보건의료 R&D 중심에서 의료기관 운영(O&M), 의료인력 교육 및 디지털 병원 설립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할 계획임
- 한국형 의료기관 위탁운영시스템(예: 직원 20%를 서울대병원에서 파견한 UAE 라스 알 카이마 SKSH 모델 등)의 사우디 진출, 한국형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지식 공유, 간호사 등 의료인 교육훈련 확대, 병원정보시스템(HIS) 수출, 건강노화(anti-aging) 및 줄기세포 등 한국 선진의료기술 이전, 보건의료 R&D 프로젝트 추진 등 보건의료 분야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함

## 2. 제약분야 사우디 진출 성과 구체화

- '15년 3월, Sudair Pharmacy Company(SPC)社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사우디 제약기업 간 향후 5년간 약 2천억원 규모의 '플랜트(plant) MOU와 의약품 수출계약'을 구체화하기로 함
- JW홀딩스는 향후 5년간 항생제, 수액제 등 4품목, BC월드제약은 진통제, 고혈압제제, 결핵치료제 등 기술이전 및 완제의약품 등 사우디 SPC社를 통해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
- 보령제약은 항암제 8개 품목, 종근당은 항암제 4개 품목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수출 MOU를 SPC社와 체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제약 플랜트 또는 의약품 수출에 관한 세부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 '13년 6월 SPC사 방한시 항암제 제조공장 건설 및 기술이전 MOU를 체결후, '14년 9월 사우디를 방문한 바 있는 일동제약은 동 프로젝트의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됨
- 사우디 14-96('14.10.9) 일동제약 사우디 출장단 면담결과 보고 참조

## 3. 우리나라 의료기관 사우디 최초 진출

- 연대 세브란스 병원 및 녹십자 의료재단과 사우디 IBV社는 '15. 3월 '여성암센터' 건립·운영 관련 협력 협약(Cooperative Agreement), 검체분석 임상병리실험실 설립·운영 관련 MOU를 체결함
- 여성암센터는 '16년 개원을 목표로 150병상 규모로 사우디 리야드에 건립될 계획이며, 진단은 여성암 검진센터에서, 진단받

은 환자에 대한 치료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운영할 여성암 센터에서 이루어질 예정

- 녹십자 의료재단은 여성암 검진센터 및 여성암센터에서 채취된 검체에 대한 분석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추후 사우디 현지에 이를 위한 임상병리실험실(clinical laboratory) 설립·운영 관련 MOU를 체결

#### 4. 국가방위부 병원 아국 간호사 신규 취업

□ '14년 12월부터 아국 간호사 고용을 추진중이던 국가방위군 병원이 '15년 4월 12명의 아국 간호사를 신규 고용하였으며, 과거 70-80년대에 한국 간호사가 사우디에 대규모로 진출한 이후, 10여명 이상의 간호인력이 사우디 병원에 취업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 주요 취업조건은 계약기간 1년(연장가능), 급여는 약 12,000리얄(수당, 보너스 등 포함) 수준으로 선진국 출신과 동남아 출신의 중간수준으로 보임
- 경력 2년 기준으로 비교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출신의 간호사들의 기본급이 약 8,000SR 수준이며 선진국인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남아공 출신의 간호사는 기본급이 14,000SR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국가방위부 Al-Awad 사무차장은 본건 채용이 한국내 채용대행회사인 KOSAnet (대표:이준, 부산시 중구 소재)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아국 간호사들이 업무처리 능력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가급적 다수의 인력을 채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급여기대수준이 높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편, 국가방

위부 소속병원에 근무할 우리 간호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설명함.

## 5. 최근 보건부 장관 교체 및 향후 협력 전망

- 사우디 Salman 국왕은 '15. 4. 29자로 보건부장관 대행인 Al-Asheikh를 해임하고, 신임 보건부장관으로 Al-Faleh을 임명함
  - Al-Faleh 신임 보건부장관은 2009. 1월부터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 회장 겸 CEO를 역임하였고, 보건부장관직과 아람코 회장직을 겸임함 (1979년부터 아람코 35년 근무)
- 사우디 보건부는 금번 장관교체로 지난 1년간 총 5번이나 장관이 교체되었고, Mansour 차관과 Khoshaim 차관 등 2명도 장관과 함께 동시에 교체됨
  - 지난 1년간 민생안정에 주요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일반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자, 기업경영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국영회사 사장 출신을 보건부장관에 임명하면서 동시에 차관들도 교체한 바, 국민의 수요에 맞는 보건의료 분야의 개혁과 쇄신을 촉구하고자 하는 국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 최근 1년간 보건부장관 변동 상황

- 2014. 4. 21 Al-Rabeeah 해임 (MERS 확산 대응 실패)
- 2014. 4. 22 Fakeih 대행 임명 (당시 노동부 장관, 겸임)
- 2014.12. 8 Al-Hayazie 임명
- 2015. 1. 29 Khateeb 임명 (Salman 신임국왕 1.23자 취임후)
- 2015. 4. 8 Al-Asheikh 대행 임명
- 2015. 4. 29 Al-Faleh 임명

- 최근 이와 같은 사우디 보건부 장관 및 차관 교체로 한-사우디 보건협력방안의 추진이 당분간 지체될 것으로 보이나, 사우디측이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신임 보건부장관이 한국을 수차 방문한 경험이 있어 아국 관련업계는 향후 우호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음.    끝.